



2021 프로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여자 농구 BASKETBALL



문화체육관광부



KPSA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목차

1. 여자프로농구 선수계약서 개정안 및 해설	1
2. 여자프로농구 선수계약서 양식	26

1. 여자프로농구 선수계약서 개정안 및 해설

1.1. 여자프로농구 선수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자프로농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한국여자농구연맹(이하 '연맹')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연봉 등을 지급하고,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으로서 선수와 구단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선수와 구단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본 계약의 서두에 기재하였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선수활동'은 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말한다.
2. '공식행사'는 구단,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드래프트(선수 선발회), 시상식, 송년회 등을 말한다.
3. '팬서비스활동'은 팬사인회, 팬이벤트 등 팬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4. '대언론활동'은 여자프로농구, 구단, 연맹과 관련된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말한다.
5. '홍보활동'은 여자프로농구, 구단, 연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촬영 등을 말한다.
6. '사회공헌활동'은 여자프로농구의 발전, 농구의 저변 확대, 농구 꿈나무의 육성, 팬과 연고지역 사회에 대한 보답 등을 위해 구단, 연맹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계약은 선수가 하는 활동을 기초로 선수와 구단의 권리·의무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선수가 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수가 경기 및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다. 선수는 그 외에도 선수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경기 및 훈련 참여와 이들 활동을 합하여 '선수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각각 정의

조향을 두었다. 이들 활동의 성격을 기재하고, 대표적인 예를 기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정의 조향을 통해 어떤 활동이 선수활동에 포함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제3조(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정해진 금지약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⑥ 선수는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선수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스포츠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2항] 구단은 연맹의 회원으로서 정관에 따라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정관 제9조 제1호). 그런데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은 구단뿐만 아니라 여자프로농구에 관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자치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실제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은 구단 이외에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 관리인 등 여자프로농구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선수에게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규약 제67조 제1항). 여자프로농구에 관여하는 사람들 모두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할 때 여자프로농구가 유지·발전될 수 있다. 선수가 본 계약을 통해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선수가 여자프로농구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여자프로농구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3항]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나 선수는 도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선수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선수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4항, 제5항]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스포츠계의 폭력, 성폭력, 성희롱은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수가 다른 선수에 대해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선수가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4조(구단의 의무) ① 구단은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수가 선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폭행, 상해 등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단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구단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스포츠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2항] 구단이 연맹의 회원으로서 정관에 따라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러한 의무를 다시 한번 본 계약에서 확인하였다.

[제3항]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수활동을 배려하고 지원하며, 능력 외의 사유로 선수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구단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4항, 제5항] 구단에는 다수의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소속되어 있다. 구단은 이들과 선수계약, 고용계약, 감독계약 등을 맺는다. 구단과 이들 간의 관계는 전형적인 고용 관계부터 대등한 계약 관계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구단이 이들에 대해 갖는 지시, 감독 권한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에 대하여 하는 폭력, 성폭력, 성희롱에 관한 구단의 의무와 책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으로서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에 대하여 폭력,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지는데, 1년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2년 이상의 다년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다만 규약 제109조 제1항은 선발회에 의하여 지명된 선수 중 1라운드에서 선발된 선수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2라운드 이후 선발된 선수의 계약기간은 1년 또는 다년으로 한다고 하여 1라운드 선발 선수에 대한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1라운드 선발 선수를 5년 동안 보유할 권리를 지명한 구단에 부여하여 구단 간의 경기력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5년의 계약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제6조(경기, 훈련 이외의 선수활동) ① 선수는 구단이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 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구단은 경기, 훈련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제1항의 행사, 활동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선수에게 알리고,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 또는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 프로스포츠 선수의 활동은 경기, 훈련에 그치지 않는다. 경기, 훈련 이외에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도 프로스포츠 선수의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이들 활동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수는 이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다만 이들 활동이 경기, 훈련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으므로 구단은 경기, 훈련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이들 활동에 대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2항] 선수에게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가 선수의 사적인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단이 선수에게 행사, 활동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알리고, 선수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 3일의 기간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한편 행사나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3일 전에 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3일 전에 알리고 협의할 의무가 없다.

제7조(연봉, 수당) ① 구단은 20〇〇년 6월 1일부터 20〇〇년 5월 31일까지의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금 〇〇〇원의 연봉을 지급한다. 구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〇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 ② 구단은 연봉의 일부로서 선수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은 선수와 구단의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한다.
- ③ 구단은 별지 '수당 내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포스트 시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 ④ 제5조의 계약기간과 제1항의 연봉 지급 기간이 다른 경우, 20〇〇년 5월 31일 이후 계약기간의 연봉과 관련하여서는 선수와 구단이 매해 선수등록 마감일(매해 5월 31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선수와 구단은 선수의 전 시즌 경기 기록, 징계 기록, 구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성실히 합의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합의가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선수와 구단은 총재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선수는 본 조의 연봉, 수당 외에 구단에게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 ⑦ 연봉, 수당에 관한 세금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1항] 연봉의 액수와 지급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20〇〇년 6월 1일부터 20〇〇년 5월 31일까지의”라는 부분은 계약기간과 연봉을 정하는 기간을 달리하는 구조를 택하는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제5조에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의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첫 1년에 대해서만 연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다. 만약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연봉을 정하는 구조라면 위 부분을 삭제하거나 제5조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될 것이다.

[제2항] 규약 제97조는 “구단은 그 소속 선수에 대하여 당해 연도 연봉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선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이러한 연맹 규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선급금 지급의 경우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선급금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제3항] 수당에 관한 조항이다. 수당은 연봉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샐러리캡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규약 제93조, 제94조). 수당은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계약서 본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별지 '수당 내역'을 통해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별지 '수당 내역'에는 수당의 명칭, 수당의 조건,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개별 수당마다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시점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구단의 업무가 불필요하게 과중해지고, 지급 시기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든 수당은 시즌이 모두 마무리되는 포스트시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30일의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수당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4항] 계약기간과 연봉을 정하는 기간을 달리하는 구조를 택하는 경우 연봉을 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연봉 협상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매해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구단과 선수가 협의하여 연봉을 정하도록 하고,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 시즌 경기 기록, 징계 기록, 구단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고, 계약 체결 시 첫 1년에 해당하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연봉만 정했다면, 2022년 5월 31일까지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연봉을 구단과 선수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 구조 아래에서는 대개 1년 단위로 연봉 협상을 할 것이나, 2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연봉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예에서 살펴보면, 2022년 5월 31일까지 2022~2023 시즌에 대한 연봉만 정하고, 다시 다음 해에 2023~2024 시즌에 대한 연봉을 정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2022년 5월 31일까지 위 두 시즌 연봉을 모두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5항]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규약 제142조 제1항은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총재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선수등록규정 제142조 제1항은 “구단은 연봉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5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는 선수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총재에게 재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위 규약 및 규정의 내용을 선수계약에 명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제6항] 구단이 이면계약을 통해 선수에게 선수계약에서 정한 연봉, 수당 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샐러리캡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팀 간의 경기력 격차를 줄여 경기의 재미와 리그의 역동성을 유지·증대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 규약 제92조 제4항에서 “구단은 선수와 체결한 선수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6항은 위 규약의 내용을 선수계약에 명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제8조(비용) 구단은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선수의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합숙비 포함)를 부담한다.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활동과 관련된 필수적인 비용을 자신의 보수 내에서 스스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활동과 관련된 범위 내로 한정된 비용만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 ‘선수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선수들이 원정경기나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등을 위해 다 함께 이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 선수활동 중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식비, 경기와 훈련 등을 위해 합숙이 진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은 구단이 부담

해야 하는 비용이다. 반면 선수가 합숙 대신 외부에서 거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자신의 거주지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 등은 선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제9조(용구, 용품) ① 구단은 선수에게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는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품이 아닌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용구, 용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농구에 있어 경기, 훈련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구, 용품은 농구공, 농구대, 유니폼, 농구화일 것이다. 농구라는 종목을 떠나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근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 장비(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등)도 경기, 훈련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구, 용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구공, 농구대, 유니폼과 기초적인 훈련 장비는 구단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농구화의 경우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선수 개인마다 선호하는 제품이 다르고, 소비하는 속도에도 차이가 있는 등 개인 용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구공, 농구대, 유니폼, 농구화 외에 스포츠 언더웨어, 스포츠 양말,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등이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에 해당하여 이를 구단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선수마다, 구단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단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구, 용품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선수계약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2항] 용구, 용품과 관련하여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니폼,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스포츠 양말 등 농구화 이외에 외부에 노출되는 착장에 대해 A 업체가 구단의 스폰서라고 가정해 보자. A 업체는 그 구단 소속 선수들이 자사가 생산한 이들 용품을 사용함에 따른 광고 효과를 기대하여 이들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금전 등 별도의 대가도 지급한다. 그러므로 구단은 선수들에게 이들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려고 할 것이다. 선수들이 이들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단과 A 업체 간의 스폰서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스폰서십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가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수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신체적 특성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

품이 아닌 다른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충분히 고려 및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와 구단이 사전에 합의하도록 정함으로써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품 사용과 개인적인 용구, 용품 사용이 조화롭게 병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항] 농구공, 농구대, 기초적인 훈련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일 뿐 선수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선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선수의 이름, 등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착용까지 하였던 유니폼에 대해 구단이 소유권을 가질 특별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컨대 우승 당시 착용했던 유니폼을 구단 홍보 시설에 전시하기 위해 그 유니폼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단이 선수에게 무상 제공하였던 용구, 용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0조(신체검사) ① 선수는 본 계약 체결 전 구단이나 연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허위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는 구단이 요구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제1항] 선수는 선수계약 체결 전에 소위 메디컬테스트(medical test)라고 불리는 신체검사를 받고, 그 신체검사 결과가 구단이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신체검사 결과가 계약기간, 연봉 등 선수계약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선수가 선수계약 체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허위가 없다는 점을 보증하도록 하였다.

[제2항] 선수계약 체결 전에 신체검사 결과가 구단에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선수계약 체결 후에도 신체검사 결과의 진실성 확인 등의 목적에서 구단이 선수에게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수는 구단이 요구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제3항] 신체검사는 구단이 선수의 영입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선수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취득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그 소요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1조(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상호 합의된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선수를 웨이버 선수로 공시할 수 있다.

[제1항] 선수는 경기, 훈련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할 수 있고, 그보다 발생빈도는 적겠지만 경기, 훈련 이외의 선수활동인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도 부상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질병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수활동 중 섭취했던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다거나, 훈련 중 장시간 강한 햇볕에 노출되어 피부병에 걸린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부상,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구단과 선수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단이 부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므로 선수에게 즉시 알릴 의무를 부과하였다. 선수가 부상, 질병 사실을 숨기거나 늦게 알릴 경우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선수로서는 즉시 알리지 않아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구단이 부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은 일차적으로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나, 의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특히, 선수의 경우에는 선수 생활의 측면에서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일상 생활의 측면만 고려하면 되는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의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경기력이 하락할 정도와 치료를 하였을 때 경기력이 하락할 정도를 비교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 A 치료법을 택했을 때의 경기력 회복의 정도 및 속도와 B 치료법을 택했을 때의 경기력 회복 정도 및 속도를 비교하여 두 치료법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구단과 선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의료기관을 선택할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구단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수는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선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구단이 그 치료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라기보다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개인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구단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선수와 구단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된 치료에 관한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2항]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훈련을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는 의학적인 판단이므로 구단이나 선수가 아닌 치료 의사의 소견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단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구단에게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이에 웨이버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치료 의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단에서는 경기나 훈련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수도 선수 생활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선수는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12조(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일정 중 발생한 부상 등이고,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다.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전액 부담하되, 협의에 따라 구단이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구단은 31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 선수가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기재하였다. 이 경우에도 선수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제11조와 마찬가지로 선수에게는 부상, 질병의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릴 의무가 있고,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선수가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수가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구단은 선수가 선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하므로(제4조 제2항), 그 취지를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구단이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 선수가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것이므로 이러한 부상, 질병으로 인해 경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부상, 질병이 발생하여도 ‘병가’ 명목으로 일정 기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점, 선수의 경우 선수생활의 측면에서 치료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치료 및 회복 기간이 장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기간 동안은 연봉을 지급하되 31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공제하는 연봉의 액수는 위 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3항]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훈련을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는 의학적인 판단이므로 구단이나 선수가 아닌 치료 의사의 소견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 선수가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구단에게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에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는 계약 해지 이후의 선수 신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제13조(의료정보의 보호, 관리) ① 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체검사 결과 등의 의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의료정보를 파쇄, 삭제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다만, 선수와 구단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구단은 여러 선수의 의료정보를 시기나 부상 부위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므로, 그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 구단은 이러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수의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단은 선수의 의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 구단은 선수의 의료정보를 계약기간 동안만 보유 및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선수의 의료정보를 계속 보유 및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4조(품위유지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약, 약물복용, 간통,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단은 계약기간 동안 구단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 선수는 선수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되고, 이를 통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일종의 공인(public figure)이다. 선수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때 여자프로농구가 발전하고, 선수 본인의 명성과 가치도 올라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수는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 대표적인 예를 기재하였다.

한편 최근 연예계, 스포츠계에서 학교폭력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프로스포츠 선수에 한정하여 볼 때, 학교폭력은 선수계약 체결 이전인 학창 시절에 있었던 폭력 행위이고, 단지 그에 대한 폭로가 현재 시점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선수계약에 ‘계약기간 동안 학교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등의 의무 조항을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신 선수계약에 ‘과거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라는 등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넣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항] 선수와 구단은 팀 성적의 향상, 여자프로농구의 발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지만, 한편으로 경기 전략에 관한 의견이 다르거나, 경기 출전에 관하여 의견이 있거나, 재계약을 앞두고 연봉 등 조건에 관하여 입장 차가 있거나, 징계나 제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하는 등으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대립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선수와 구단은 서로에 대한 불만, 서운함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아니라 외부에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면 모두에게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2항에서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3항] 구단에는 다수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소속되어 있다. 구단은 이들과 고용 계약, 감독계약 등을 맺는다. 구단과 이들 간의 관계는 전형적인 고용 관계부터 대등한 계약 관계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구단이 이들에 대해 갖는 지시, 감독 권한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그러므로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에 대하여 하는 명예나 신용 훼손에 관한 구단의 의무와 책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으로서 구단은 구단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에 대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15조(부정행위) ① 선수는 게임, 사행행위, 도박, 복권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수는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구단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항] 선수가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기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불법 스포츠 도박 등 법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포츠토토’와 같이 적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선수가 돈을 받고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경기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되고, 여자프로농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에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3항] 승부조작 등의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나, 관여할 선수를 포섭하는 과정 등에서 선수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수는 능력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동료 선수나 상대팀 선수가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 보복이 두려워서 등의 이유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선수는 구단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고, 구단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제16조(비밀유지) 선수는 경기나 훈련에 관한 정보(전술,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구단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술,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 경기나 훈련에 관한 정보가 구단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경기의 공정성이 심각히 저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전술을 의미하는 손짓 등의 신호가 다른 팀에 유출되는 경우 경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조는 이와 같은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17조(퍼블리시티권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자신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구단에게 부여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호에 한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 계약 종료 전에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기록 보존 등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구단은 선수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여자프로농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2. 연맹, 구단(구단의 모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3. 연맹, 구단의 상품화(merchandising)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인 경우
4. 연맹, 구단, 연맹 또는 구단의 후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활동인 경우
5. 선수 및 구단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활동인 경우

⑤ 선수가 제4항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선수와 구단이 협의하여 배분한다.

⑥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선수와 구단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항]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경기 영상에는 선수의 초상, 목소리 등이 사용된다. 선수가 연맹의 시상식이나 팬사인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상식 및 팬사인회 장면을 찍은 사진에 선수의 초상 등이 사용되고, 중학교 농구부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지도 장면을 찍은

사진에 선수의 초상 등이 사용된다. 선수가 구단 홍보를 위한 광고를 촬영하는 경우 그 광고 영상에는 선수의 초상, 목소리 등이 사용된다. 판매용 저지(jersey)에도 선수의 이름 등이 사용된다. 이처럼 선수활동에 있어 선수의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경기 영상, 시상식 사진, 팬사인회 사진, 중학교 농구부 지도 사진, 구단 광고 영상, 판매용 저지 등이 대중에게 노출되어야 대중은 선수, 그 선수의 팀, 그 선수가 소속된 구단, 그리고 여자프로농구에 관심을 갖고 팬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단이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선수의 초상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봉 등 대가에는 이러한 초상 등의 이용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단이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선수의 초상 등을 이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수활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제2항] 구단은 원칙적으로 계약 중에만 선수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전에 선수의 초상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이 있는 경우 그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재고를 폐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기존 팬들의 수요가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단이 판단하여 재고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여자프로농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여자프로농구의 유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록 보존 등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선수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항] 구단에게 선수의 초상 등을 이용할 독점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를 희화화하는 등으로 선수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점을 명시하였다.

[제4항] 선수가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수가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구단, 구단의 모기업, 연맹의 기여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해가 되는 활동은 일정한 기준 아래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대중은 그 선수를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활동이 여자프로농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되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구단은 서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5항] 선수의 가치는 선수 본인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부분이 가장 크지만 구단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선수와 구단이 배분하도록 하되 그 배분 비율은 선수마다, 활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선수에게 수익의 전부를 배분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항]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구단과 선수의 수익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선수와 구단 모두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자가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인지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18조(진술 및 보증) ① 선수와 구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그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단은 본 계약 체결 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선수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제3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구단을 상대로 이의 제기,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선수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구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 선수와 구단 모두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이다.

[제2항]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조 제1항). 구단이 미성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법정대리인은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동의를 할 것이고, 동의가 없다는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단이 계약 체결 전 미성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보증한다는 조항이다.

[제3항] 기존에 선수계약이 있음에도 이중으로 선수계약을 하거나, 선수계약상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계약이 없음을 선수가 보증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또한 만약 그러한 기존의 계약이 존재하여 그 계약 당사자인 제3자가 구단을 상대로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선수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를 해결하여야 하고, 구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제19조(트레이드) ① 구단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내 매 시즌 중 최종2라운드 시작 전까지 다른 구단과의 양도·양수(이하 ‘트레이드’) 계약에 따라 구단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선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트레이드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의 고지 및 설명일로부터 양수 구단에 합류하는 날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도록 양수 구단에 합류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합류하지 않은 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⑤ 선수가 트레이드를 거부하여 트레이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제5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시”는 “해지”로 본다.

⑦ 선수가 트레이드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구단이 선수에게 이사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 먼저 구단은 트레이드 전에 선수와 협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였다. 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구단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의 대상이 되는 선수에게 트레이드 사실이 알려지면 트레이드 자체가 무산되거나 트레이드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일방적인 트레이드는 선수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측면이 있고, 선수가 겪는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아픔을 도외시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트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선수와 ‘협의’를 거치면 될 뿐 선수의 ‘동의’나 ‘승낙’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수는 트레이드가 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선수계약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구단은 원칙적으로 기존 선수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다.

한편 규약 제115조는 트레이드를 계약기간 내 매 시즌 중 최종2라운드 시작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트레이드 가능 시기를 정하였다.

[제2항] 트레이드로 인해 선수는 선수 생활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므로 트레이드 사실과 이유를 트레이드 즉시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에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선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트레이드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제3항]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선수는 양수 구단에 합류하여야 한다. 트레이드 즉시 합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사를 하거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알리고 설명한 날로부터 합류까지 최소한 3일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위 3일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늘릴 수 있으나 줄이는 것은 조항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

[제4항] 만약 선수가 양수 구단에 약정한 기한까지 합류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합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봉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할 연봉은 위 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5항, 제6항] 트레이드는 팀 간 경기력 격차를 줄이고 리그의 역동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구단에게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드를 할 권리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 협의, 즉시 고지 및 설명, 합류까지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선수 보호 장치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트레이드를 거부한다면 구단으로서는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선수가 끝내 트레이드를 거부하여 트레이드 계약이 무산된 경우, 구단은 임의해지 절차에 따라 선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항] 선수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수가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구단이 이사 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제20조(웨이버) ① 구단이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해지나 다른 구단への 양도를 위하여 총재가 웨이버 선수로 공시하면 선수는 웨이버 선수가 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이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선수는 구단으로 복귀한다. 단, 선수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선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 규약 제83조 제1항은 “웨이버 선수는 구단이 소속 선수와 선수계약의 해약을 원하거나 타 구단에 양도 의사가 있어 그 명단을 WKBL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총재가 웨이버 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이러한 규약의 내용을 선수계약에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항] 규약 제83조 제3항은 “구단은 웨이버 선수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당해 시즌에는 계약된 연봉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연봉조정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본문은 이러한 연맹 규약의 내용을 선수계약에서 확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웨이버는 구단의 판단에 따른 계약 해지 절차이므로 잔여 연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선수가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는데 여러 구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 대회 성적순위를 기준으로 하위 구단 순으로 지명 우선권을 부여한다(규약 제114조). 한 구단의 신청만 있을 때에는 물론 그 구단에게 지명권이 있다. 구단과 다른 구단이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 즉 이적 계약을 체결하면, 선수는 다른 구단으로 그 소속이 변경된다. 이 경우에 구단은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하면 된다.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양수 구단이 연봉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제3항, 제4항] 규약에 의하면, 선수가 구단의 계약 해지를 승낙할 경우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규약 제82조 제4호, 제83조 제2항). 웨이버는 구단의 판단에 따른 계약 해지 절차임에도 규약은 해지에 있어 선수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프로야구 및 프로배구와 다른 부분이다. 다만 구단에게 자유로운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데 따른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선수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 웨이버 제도와 어긋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에 규약의 취지에 좇아, 이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나 선수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선수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신분이 됨을 명시하였다.

제21조(임의해지) ① 선수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이 임의해지에 동의하고, 총재가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선수는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

② 구단은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여자프로농구 선수로 복귀할 수 없다.

④ 선수는 공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⑤ 선수는 공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⑥ 전 3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실업 팀에 소속되어 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1항] 선수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선수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한 것은 선수가 임의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이후 구단의 동의하에 총재의 공시 절차를 거쳐 임의해지 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제2항] 임의해지는 선수의 의사에 따른 계약 해지이므로 구단은 임의해지 선수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3항 내지 제6항] 선수는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여자프로농구 선수로 복귀할 수 없고, 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선수는 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한편 위 3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실업팀에 소속되어 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명시하였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선수는 구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구단이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해지를 강요한 경우
4.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5.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6. 구단이 해산, 파산하는 경우
7. 기타 구단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③ 구단은 선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우
3.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선수에게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결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8.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④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구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1.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잔여 연봉 전액
 2.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
-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로 효력이 없다.

[제1항] 양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인 약정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수계약을 위반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위반 사항의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이란 통상적으로는 2주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정 촉구를 ‘내용 증명 우편’ 등 서면 형식으로 하면 시정을 촉구하였는지 여부나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 상대방이 시정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선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제5호), 구단이 해산, 파산하는 경우(제6호),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였는데 그러한 보증이 허위인 경우(제1호)에는 구단의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연봉의 지급은 구단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선수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분의 연봉 미지급(제4호)을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즉시 해지 사유가 되는 연봉의 미지급 개월 수는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임의해지(기존의 ‘임의탈퇴’)가 그 본질과 달리 징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해지를

강요하는 경우(제3호)를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또한 스포츠계 성폭력,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폭력, 성희롱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성폭력, 성희롱 방지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제2호)를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 구단이 선수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수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제7호)에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3항] 구단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였는데 그러한 보증이 허위라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한 경우(제1호), 신체검사 결과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결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제4호)에는 선수의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금지약물의 사용(제2호), 부정행위(제6호), 비밀누설(제7호)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제5호)도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스포츠계 성폭력,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폭력, 성희롱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성폭력, 성희롱을 한 경우(제3호)를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 선수가 선수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수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제8호)에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4항] 해지가 되는 경우에 연봉의 지급에 관한 조항이다. 구단의 잘못으로 선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선수의 잘못으로 선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일까지의 연봉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제5항] 해지권의 행사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해지 전에 발생한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제6항] 해지 이후의 선수의 신분에 관한 조항이다. 해지는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선수는 해지 이후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해지에 따른 선수의 신분만을 정하는 것이고, 징계나 제재까지 고려한 선수의 신분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수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금지약물을 사용하여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할 때, 선수는 연맹, 협회 등의 징계나 제재로 인해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p>제2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이 있다.

제24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선수와 구단은 경기 개최 불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감액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다만, 연맹에서 정한 최저연봉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

[제1항] 불가항력적 사유는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불가항력 상황이 실제 발생하였을 때 선수계약 중 어느 부분을 이행할 수 없는지, 어느 부분의 이행이 얼마나 지연될지는 그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는 알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와 같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2항]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경기 개최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여자프로농구의 경우 연맹은 2020년 3월 20일 COVID-19 사태로 인해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 결정전의 모든 잔여 일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구단 입장에서 경기가 개최되지 않으면, 선수들의 연봉이나 시설 유지비 등 기존의 지출은 그대로 발생하는 반면 관람료, 중계료, 광고료 등 구단의 주요 수입원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선수도 일부 분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계약서상 불가항력을 이유로 선수의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되, 선수와 구단이 경기 개최 불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감액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도록 정하였다. 다만 최저연봉은 선수의 삶을 위해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연맹에서 정한 최저연봉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정하여 감액의 하한을 설정하였다.

제25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재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당사자는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지권 행사 가능성 등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조정과 소송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규약은,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총재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재정위원회가 조사·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규약 제142조, 제143조), 구단과 선수는 이러한 연맹 내부의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제3항] 구단과 선수가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제1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였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정 법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은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제4항은 이러한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법령의 내용을 표준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6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연맹 총재가 선수등록을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선수등록규정 제9조는 총재가 선수등록을 공시하여야 선수계약과 선수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이러한 규정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제2항] 본 계약이 구단과 선수 간의 다른 모든 합의에 우선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구단이나 선수는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합의를 이유로 본 계약의 내용과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항] 선수 또는 구단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 형태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제2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의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는 없고 계약도 항상 명확하게 해석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호 협의를 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관련 법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의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2. 여자프로농구 선수계약서 양식

여자프로농구 선수계약서

○○○(이하 '선수')와 ○○○○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자프로농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한국여자농구연맹(이하 '연맹')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연봉 등을 지급하고,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선수활동'은 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말한다.
2. '공식행사'는 구단,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드래프트(선수 선발회), 시상식, 송년회 등을 말한다.
3. '팬서비스활동'은 팬사인회, 팬이벤트 등 팬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4. '대언론활동'은 여자프로농구, 구단, 연맹과 관련된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말한다.
5. '홍보활동'은 여자프로농구, 구단, 연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촬영 등을 말한다.
6. '사회공헌활동'은 여자프로농구의 발전, 농구의 저변 확대, 농구 꿈나무의 육성, 팬과 연고지역 사회에 대한 보답 등을 위해 구단, 연맹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정해진 금지약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⑥ 선수는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구단의 의무) ① 구단은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수가 선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폭행, 상해 등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단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6조(경기, 훈련 이외의 선수활동) ① 선수는 구단이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 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구단은 경기, 훈련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제1항의 행사, 활동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선수에게 알리고,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 또는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연봉, 수당) ① 구단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의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금 000원의 연봉을 지급한다. 구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0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구단은 연봉의 일부로서 선수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은 선수와 구단의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한다.

③ 구단은 별지 '수당 내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포스트 시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5조의 계약기간과 제1항의 연봉 지급 기간이 다른 경우, 2000년 5월 31일 이후

계약기간의 연봉과 관련하여서는 선수와 구단이 매해 선수등록 마감일(매해 5월 31일)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선수와 구단은 선수의 전 시즌 경기 기록, 징계 기록, 구단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협의가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선수와 구단은 총재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선수는 본 조의 연봉, 수당 외에 구단에게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⑦ 연봉, 수당에 관한 세금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8조(비용) 구단은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선수의 선수활동과 관련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합숙비 포함)를 부담한다.

제9조(용구, 용품) ① 구단은 선수에게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는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가 개인 스폰서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품이 아닌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용구, 용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체검사) ① 선수는 본 계약 체결 전 구단이나 연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허위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는 구단이 요구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선수활동과 관련된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상호 합의된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선수를 웨이버 선수로 공시할 수 있다.

제12조(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선수활동과 관련 없이 자신의 귀책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일정 중 발생한 부상 등이고,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질병,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다.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전액 부담하되, 협의에 따라 구단이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구단은 31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의료정보의 보호, 관리) ① 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체검사 결과 등의 의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의료정보를 파쇄, 삭제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다만, 선수와 구단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품위유지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약, 약물복용, 간통,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단은 계약기간 동안 구단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행위) ① 선수는 게임, 사행행위, 도박, 복권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수는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구단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선수는 경기나 훈련에 관한 정보(전술,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구단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퍼블리시티권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에 한정하여 자신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구단에게 부여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호에 한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 계약 종료 전에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기록 보존 등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구단은 선수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제2조 제1호의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여자프로농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2. 연맹, 구단(구단의 모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인 경우
3. 연맹, 구단의 상품화(merchandising)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인 경우
4. 연맹, 구단, 연맹 또는 구단의 후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활동인 경우
5. 선수 및 구단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활동인 경우

⑤ 선수가 제4항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선수와 구단이 협의하여 배분한다.

⑥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선수와 구단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8조(진술 및 보증) ① 선수와 구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그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단은 본 계약 체결 전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선수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제3자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구단을 상대로 이의 제기,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선수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구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트레이드) ① 구단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내 매 시즌 중 최종2라운드

시작 전까지 다른 구단과의 양도·양수(이하 '트레이드') 계약에 따라 구단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선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트레이드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의 고지 및 설명일로부터 양수 구단에 합류하는 날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도록 양수 구단에 합류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합류하지 않은 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⑤ 선수가 트레이드를 거부하여 트레이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제5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시"는 "해지"로 본다.

⑦ 선수가 트레이드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구단이 선수에게 이사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웨이버) ① 구단이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해지나 다른 구단과의 양도를 위하여 총재가 웨이버 선수로 공시하면 선수는 웨이버 선수가 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이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선수는 구단으로 복귀한다. 단, 선수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선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임의해지) ① 선수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이 임의해지에 동의하고, 총재가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선수는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

② 구단은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여자프로농구 선수로 복귀할 수 없다.

④ 선수는 공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⑤ 선수는 공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⑥ 전 3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실업 팀에 소속되어 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4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선수는 구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구단이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해지를 강요한 경우
4.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5.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6. 구단이 해산, 파산하는 경우
7. 기타 구단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③ 구단은 선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우
3.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선수에게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결과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8.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④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구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1.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잔여 연봉 전액
2.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2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4조(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선수와 구단은 경기 개최 불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감액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다만, 연맹에서 정한 최저연봉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

제25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재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당사자는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연맹 총재가 선수등록을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계의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선수와 구단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선 수 : 인

생년월일 :

주소 :

구 단 :

주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수당 내역

명칭	조건	금액	비고

프로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연구책임자

변 호 사 임 상 혁

참여연구원

변 호 사	송 재 섭
변 호 사	문 진 구
변 호 사	황 지 원
변 호 사	조 은
변 호 사	김 소 리
미국변호사	박 민 영
미국변호사	이 재 복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21년 8월

발행처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타워 5층
02-6190-5930

2021 프로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여자 농구 BASKETBALL



문화체육관광부


KPSA
한국프로스포츠협회